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29:13-14
 2026년 3월 1일 오전 11시

입술인가, 마음인가

< 주역 도우소서 >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 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사 29:1). 아리엘은 하나님의 암사자란 뜻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현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2절). 두 번째 아리엘은 번제단입니다. 아리엘이란 히브리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암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통하여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에 삼켜지는 것같이 예루살렘이 불에 삼켜지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세기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근거는 무엇이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사마리아는 앓수르에 의해 멸망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은 살아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앓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에 다 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앓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 19:35). 이것은 예루살렘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앓수르 왕 산헤립의 교만때문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앓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앓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왕하 19:10-11).

헌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이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13 절). 백성들은 말로만 하나님과 가까운 체 하였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속았습니다. 허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 7:16). 말이 아닌 행위를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사 1:12).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 1:15). 악행 때문입니다.

악한 행실로 손에 피를 잔뜩 묻히고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사 1:16-17). 회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바른 삶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후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헌데 당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되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사 1:10).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최악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최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최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창 18:20-21).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악행이 얼마나 큰지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 명이 없어서 멸망 당하였습니다.

헌데 지금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사 1:21).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리엘이 죄로 가득 찬 성읍이 되었습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 1:23).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도둑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뇌물에만 마음이 있어서 뇌물을 줄 수 없는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억울한 하소연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멸망 전의 예루살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 명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 5:1). 이사야가 사마리아의 멸망 때 활동한 선지자인 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은 100 년 전 선지자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때의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와 위선적인 신앙인은 있었지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인용하셨습니다. 발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시비였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막 7:5).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안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목축이나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번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룻기에는 보리 추수를 하던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볏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룻 2:14). 보아스가 룻에게 손을 씻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면 좋지만 안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양 설레발을 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막 7:6-7).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고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막 7:8). 나아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 7:9). 그리고 한 사례를 듭니다. 그것은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막 7:11). 고르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헌물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레 1:2). 여기에서 예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코르반(קורבן)입니다.

헌데 장로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약속의 첫 마디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고르반은 오직 성전에만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르반은 부모에게 주면 안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막 7:12). 그러자 사람들은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부모를 부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헌데 장로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자, 사람들은 부모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사용하다가 죽을 때에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고르반이라는 경건의 허울로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막 7:13). 여러분, 무엇이 더 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입니까. 위선자들은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선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를 소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사 29:14).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가 말라버리고, 총명하다는 자들의 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박힐 수 있느냐 하며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선이 아닌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4).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은 멀고 정의는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부모를 외면했던 위선자들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순종을 피해 가고 있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입술의 신앙을 버리고 마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의 예배를 멈추고 회개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려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 Soli Deo Gloria >